내부-자 하나님, 외부-자 하나님

(사무엘상 9장 1~27)

1.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3.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4.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 그들이 숩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6.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7.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9.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부-자 하나님, 외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내부-자 하나님, 외부-자 하나님’
insider 하나님, outsider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부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

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여론과 권력과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을 내부자들로 칭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 경찰, 검찰 조직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내부자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패의 근원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정치깡패가 내부자들에 의해서 이용만 당하다가 폐인이 되는데, 백이나 족보도 없이 근성하나 믿고 조직으로 뛰어든 검사와 손을 잡고 복수를 해나가는 내용으로 소개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부자일까요? 외부자일까요?'라고 물으면 너무 추상적이지요. 일정한 조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라야 내부자라든지 외부자라든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핵심부나 돈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삼성, LG, 현대, SK 같은 탄탄한 대기업의 내부자로 취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내부자와 외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요17:14절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세상에 대해 외부자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또 16절에 반복하셔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라고 하십니다.

선민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는 외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내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버려지심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마음에서 하나님이 버려진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내부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선민은 하나님이 나의 내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외부자들입니다.

삼상8:7절에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하나님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어떻게 판명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현실감이었습니다. 나의 현실감을 보면 하나님이 내부자이신지 외부지이신지 판명이 됩니다. '현실감'은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신경쓰고 있는 대상입니다. 현실(現實)에서 나타날 '현(現)'자는 구슬 옥(玉)자이면서 임금 왕(王)자인 글자를 내포하고 있고 거기에 볼 견(見)과 뵈올 현(見)이 붙은 것이고, 왕처럼 우두머리처럼 내 마음에서 1등으로 눈에 띠는 대상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實)'자는 '빈 공간을 채운다.'는 뜻으로 왕처럼 우두머리처럼 빛이 비치며 나타나서 그 대상이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왕처럼 우두머리이신 것처럼 내 마음에서 1등으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신다면 나와 관계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현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서 버려지신 것이고 나의 외부자이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서 1등이 되셔서 온통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을 때에야 하나님은 나의 내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내부자가 되실 때와 외부자가 되실 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면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와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감의 내용이 못 되시면 나의 외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현실감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 세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부자가 되셨을 때에 실제로 섭리하시고 통치해나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선민들의 요구대로 사람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사울 입장에서는 완전한 우연입니다. 아버지 기스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울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잃어버린 나귀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가 왕처럼 빛을 발하면서 사울의 마음에 나타나서 다 차지하는 현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마음에서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하시고 버려지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삶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울도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삶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지만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시지 못하더라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면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을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과정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룻도 보아스를 만나게 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이삭을 주우러 갔을 뿐입니다. 사울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룻과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룻은 당시의 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던 남편과 아들들과 재산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즉 룻의 마음에서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1등을 하신 것입니다. 룻이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주를 해왔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하나님을 현실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부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 것은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우연이지만 외부자로서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외부자로서 역사하시고, 룻은 하나님이 내부자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외부자로 둔 사울은 왕이 되지만 하나님으로부

터 하나님의 외부자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내부자로 둔 룻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연히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다윗 왕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내부자로 삼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외부자가 되시든 내가 모셔 들여서 내부자가 되시든 통치하시나, 나의 외부자로서 통치하실 때에는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외부자가 되어서 버림을 받게 되고, 룻과 같이 하나님을 내부자로 모실 때에는 구원의 역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내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부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때와 외부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때의 차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첫째로 참 기쁨의 문제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 바로 앞 13절에서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외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갖는 기쁨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갖는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생긴 기쁨입니다. 그에 비해 세상에 대해 내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돈, 권력, 건강, 성공 등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가진 상태가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이 나의 내부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을 갖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외부자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내부자가 되시면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1등이 되지 못합니다. 하늘이 내 마음의 1등이 되면 내 마음에는 기쁨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아버지 때문에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생기는데 이 상태가 구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내부자로 계실 때에는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사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 충족된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만 사명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외부자로 통치하실 때는 사울처럼 왕이 되는 자리를 쥐게 될지라도 영원히 버림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외부자로 삼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는 일어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물만을 붙잡게 되어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더욱더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외부자가 되어버리고 사명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여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맺히는 열매들이 있지만, 계속해서 사명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열매들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부자로 둔 사람들은 자꾸만 그 열매를 붙잡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사명을 주셨어도 왕 자리를 붙잡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내부자로 모셔야 하는데, 계속해서 왕 자리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

쁨은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외부자가 되시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외부자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셋째로 찻잔 속의 폭풍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現實)의 자형의 의미를 따져보면 현실은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만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영역이나 물리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물들이 사실로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 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과 대비되는 대상으로서 꿈을 이야기하는데 글자의 의미대로 꿈이야말로 진짜 현실입니다. 마음에 부딪히고 붙어있는 대상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현재의 상황은 종속적인 현실입니다. 내 마음이 가서 닿고 있는 진짜 현실인 꿈은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그 꿈이 빛을 발하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속적 현실'은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의미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꿈에 붙으면 꿈이 현실이 되어서 현재 놓인 물리적인 사실들을 좋다, 나쁘다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붙은 현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현재의 상황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벤츠를 타고 다니고 초호화 아파트에 살고 싶은 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안 벌리는 현재의 상황을 부족하고 결핍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현재의 상황은 내 마음이 붙어 있는 현실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실이면 돈 없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의미는 다르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라시고 돈을 안 주신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차를 사서 좋아하겠지만 그 분량조차도 하나님으로 좋아하라고 차를 안 주신다고 여기게 되고, 좋은 집이 없더라도 그 분량만큼 하나님을 좋아하라고 안 주신다고 여기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종속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내부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십자가 생활화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내부자가 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내부자로 삼으시는 것도 결정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면 내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외부자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부자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빛을 발하며 내 마음의 왕처럼 등장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만을 왕처럼 빛나는 1등으로 모셔서, 내 마음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영원히 나를 당신의 내부자로 삼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이 내 마음에서 자각됨으로 하나님이 나의 내부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내부자가 되는 놀라운 은총의 교차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